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 감상지도의 지역특성화
방안

A Study on Regional Spe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서 윤 아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 감상지도의 지역특성화
방안

A Study on Regional Spe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서 윤 아

2009년 2월

초등학교 미술 감상지도의 지역특성화
방안

A Study on Regional Spe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서 윤 아

2008년 11월

서윤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12월

국문 초록

초등학교 미술 감상지도의 지역특성화 방안

서 윤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본 연구는 미적 체험 및 감상 교육을 중시하는 미술 교육의 추세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의 미술교육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현장감 있고 실제적이며 지역화된 미술과 감상지도 수업 예시안을 제시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미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적체험 및 감상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통한 미술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지 미술관, 박물관을 통한 감상 교육만을 다루었지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없고, 있어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역화 미술 감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에 있는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미술과 감상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감상 지도의 중요성 및 교육과정을 고찰해보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감상 학습의 장으로 교실과 생활주변의 장을 비교해 보았으며,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주변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교육적 기능과 현황을 토대로 감상학습의 장을 선정하여 아동의 흥미와 지역 실정에 맞게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지역화 감상지도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4
가.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	4
나.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필요성과 의의	5
다.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의 내용과 방법	7
2.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11
가. 6학년 미술교과서의 전통미술 관련 내용 분석	11
나. 6학년 미술교과 교육과정	13
3. 문화재 교육	15
가.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15
나. 문화재의 종류	16
다. 문화재 학습의 교육적 의의 및 필요성	19
라. 효율적인 문화재 학습 활동	21
III. 제주지역 문화재 및 문화시설 활용지도	23
1. 문화재 및 문화시설 활용의 의의	23
2.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교육적 기능 및 현황	25
가. 박물관	25

나. 미술관 및 전시 공간	27
다. 조형물 및 자연환경과 문화재	30
3. 학교 교육계획 실태 및 감상학습 방법	35
가. 현행 학교 교육 계획 실태	35
나. 감상학습의 유형	40
다. 현장학습 계획	42
라. 작품 감상 방법	45
IV. 지역화 감상지도 수업의 실제	48
1. 감상학습의 장(場) 선정	48
2. 감상 학습 모형	50
3. 교수·학습 과정안	52
가. 환경과 건축	52
나. 아름다운 생활용품	57
V. 결론 및 제언	62
참고 문헌	64
ABSTRACT	65

표 목 차

<표 II-1> 6학년 미술교과서의 전통미술 관련 작품 도판 분석	12
<표 II-2> 초등 6학년 미술교과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13
<표 II-3> 지정문화재의 종류	17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현황	27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관 및 전시 공간	30
<표 III-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32
<표 III-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정 문화재 현황	33
<표 III-5> 미술과 영역별 지도내용	36
<표 III-6>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진도표	37
<표 IV-1> 감상 학습의 장	49
<표 IV-2> 감상 학습 모형	51
<표 IV-3> 교수·학습 과정안 : 제주의 초가	55
<표 IV-4> 성읍 민속마을 감상학습지 : 제주의 초가	56
<표 IV-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안내	59
<표 IV-6> 교수·학습 과정안 : 조상들의 생활 용품	60
<표 IV-7> 국립제주박물관 감상학습지 : 조상들의 생활 용품	61

그림 목 차

[그림 IV-1] 성읍 민속마을 전경	52
[그림 IV-2] 성읍 민속마을 관람 안내도	54
[그림 IV-3] 국립제주박물관 전경	57
[그림 IV-4] 국립제주박물관 약도	5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제주도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주변의 검은 현무암, 거센 바람과 함께 지내온 두터운 초가지붕, 풀을 뜯는 조랑말 등 다른 고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리적, 자연적 특성은 제주인들의 삶과 더불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으며 그 바탕위에서 자생된 문화적 특성은 제주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크나큰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가 지나온 발자취를 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재창조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 경쟁력은 무엇보다 문화교육에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외래 미술 사조를 기준으로 가치를 논해왔다. 그럼으로써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전통미술 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민족적 특성을 지닌 지역 문화에 대한 미적 감각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으로 전통적인 미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외래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대응책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의 감상 영역에서 문화재의 역사적인 의미, 조형적인 탐색, 정신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감상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 지역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미술 감상 교육을 연구 하였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이며 지역화된 미술과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감상 수업 예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문화시설 중 박물관 및 전시 공간, 조형물, 자연환경과 제주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감상학습의 장을 선정하여 미적 체험 및 감상 교육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이며 지역화된 미술과 감상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감상 수업 예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첫째,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래, 그에 따른 지역문화재의 유형과 내용을 향토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여 문화재만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조형적인 특징, 정신적인 가치를 찾았다.

둘째, 미술 감상의 의미와 가치, 그에 따른 감상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 및 문화재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미술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상학습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미술환경 감상 학습의 장으로 박물관, 전시 공간, 조형물, 자연환경, 문화재에 대한 의의, 교육적 기능 및 활용지도 방법을 알아본다.

다섯째,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문화재의 미적인 면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해 보고자 한 내용은 첫째, 지역 문화재를 미술 감상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둘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미술품을 소재화 함으로써 생생한 미적 체험을 하고, 조형적 특징 및 자연미와 조화된 조형미를 미술 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작품 감상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통하여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지역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애호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들은 이 땅을 지켜온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미적감상 자원이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숨 쉬고 조성된 문화재를 좋은 감상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화재의 이해와 조형적인 아름다움

을 발견하게 하고 감상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제주도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중요성을 문헌을 통해 연구한다.

둘째,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과 교육과정 연간 계획 및 현장학습 계획을 분석하여 감상학습의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제주지역 소재의 박물관, 전시 공간, 문화재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술 감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학습의 장을 선정한다.

넷째, 감상 학습 지도의 실제에서 생활주변 미술환경에서 선정된 감상 학습의 장을 모델로 감상 수업 예시안을 작성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생활주변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전시 공간, 조형물 및 자연환경, 문화재 등으로 제주도에 소재한 감상학습의 장으로 제한 한다.

둘째, 감상지도 요소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6학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감상 수업안은 지역 및 학교의 실정,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목표 달성에 알맞은 활동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시안을 전개한다.

넷째, 수업안은 감상을 주로 하고 이해와 표현을 결들인 수업형태로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를 모델로 거리와 시간을 맞추어 관람일정을 짜서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가.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미

교육과정은 그 구성과 운영의 구체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혹은 혼합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개발 유형들은 사회문화적 정서적 배경이나 국가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등에서 오는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기초위에서 나름대로 채택하고 있음으로 어느 특정의 교육과정 개발유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전형적인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제6차 교육과정부터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과 자율화를 촉진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 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개선하여 왔다(교육부, 1998, p. 7).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국가에서 의도한 교육과정과 지역이나 학교에서 전개한 교육과정간의 관계를 의미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개발된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지역사회의 실정,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 등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계획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의미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교사나 학생, 학교에게 중앙의 교육과정과는 관계없는 자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인정옥, 1988, p. 20).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엄밀히 말해 소극적인 의미의 지역화로 국가 기준과 지역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단위 학교별

로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적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교별로 실정에 맞도록 교육 목표를 조정하고,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삭제·통합하기도 하며, 지역 사회의 자연 자료, 사회적 자료, 문화·역사적 자료 등을 교육에 활용하거나, 교육 분량에 따른 학습 시간의 늘임과 감축은 물론 계절과 행사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도의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 중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미술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와 관련한 미술 문제를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교사와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미적 경험을 하면서 미술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의 미술문화를 자료로 활용하고 그 지역의 재료로 표현하며 그 지역의 문화공간을 탐방하고 견학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 및 그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각 지역 사회에서 그 실정에 맞는 미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이규선 외, 1994, p. 125).

이처럼 지역화된 미술교과 교육과정은 아동들에게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미술교육의 영역이 단순히 미술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꾸미고 만들어 보면서 미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나.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필요성과 의의

1)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필요성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육과정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무의미하며 학교 교육 운영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이나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체제는 그 개발과 운영이 중앙집권적이어서 교육과정의 개발은 주로 국가적, 사회적인 요구나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어린이와 학교, 지역사회의 요구나 변화를 소홀히 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그 개발과정 또한 경직되어 있어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도 획일적이고 관료적이어서 교육과정의 실천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학교장이나 교사의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학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황과 유리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쉽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잠재적인 갈등을 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중앙에서 의도하는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어떤 교육과정이든, 국가적, 사회적인 요구측면에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지도대상인 아동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욕구에 충족 되지 못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에 부적합하여 목표성취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 교육과정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의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즉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절실히 요망된다(인정옥, 1988, p. 7).

특히, 미술 교과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명시적이고 계획된 교육과정 외에 비중이 있는 또 다른 교육과정, 즉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실생활에서의 미적인 체험과 사물을 학습의 내용으로 하며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학습활동의 배경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속에서 어린이들은 환경과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며, 자연과 조형, 지역 사회의 다양한 조형물과 생활과의 관련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미적인 안목을 기르게 된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지역의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이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 실정에 맞는 미술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지역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지역화 되어야 한다.

2)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의

미술교과 교육과정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의의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공급자 위주의 교과서 중심 교육이 수요자를 고려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역화 교육과정은 교육 실천자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하도록 편성한 실행 교육과정이므로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보다 학습자인 어린이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수업의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주체가 교과서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와 자료로 활용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과서에 학습자인 어린이를 맞추는 획일화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의 다양한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이 경시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 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존중될 수 있고, 어린이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의 내용과 방법

1)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내용

가) 교육과정 지역화의 근거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운영 편성 지침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권한은 국가에 주어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교과를 만들어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학교는 국가 수준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권한이 이와 같이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제 7차 교육과정의 이념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일단 소극적 의미의 교육과정 지역화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과 관련된 각급 기관의 역할분담을 ‘교육·편성 운영 지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② 시·도 교육청 :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③ 지역 교육청 :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④ 각급 학교 :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교육부, 1998, pp. 12-25).

이처럼 제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위와 같은 교육·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각급 학교가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실정이나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나) 지역화 내용의 선정

미술 교과서나 지도서 등의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미술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

로 인하여 교과서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하며, 평가 문항도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교육 현장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이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여전히 전국 공통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미술교과 교육과정이 제대로 지역화 되기 위해서 지역 사회는 어린이들이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때 학습 내용의 선정은 미술과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또는 생활 주변에서 자료를 쉽게 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의 시설, 교사와 어린이의 능력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화 단원은 내용을 무리하게 지역화하거나 지역화 과정에 있어 편협한 내용만 다루어 일반적인 내용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며, 향토 미화와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향토 문화재와 고적지에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요소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 학습 시기, 단원 차시 및 시간, 지도자, 학습 장소, 학급 조건, 수업 형태 등을 지역화 요소로 선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 ① 지도 내용-학교 실정, 지역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보완, 강조, 대치, 첨가 한다.
- ② 학습 시기의 조정-계절, 학교 행사,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 ③ 단원의 차시 및 단위 시간의 조정-지역의 특수성, 아동의 능력, 의도된 목적, 교재의 성격에 따라 조정한다.
- ④ 지도자의 선정-자원인사, 전담교사, 팀티칭 등으로 선정한다.
- ⑤ 학습 장소의 적정 선택-생활 전 영역(학교, 가정, 지역)에서 선택한다.
- ⑥ 학급 조건 고려-적성, 흥미, 기능, 양식, 신체 및 생활 조건,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한다.

- ⑦ 수업 형태의 다양화- 조사·관찰 중심(미술관, 박물관 등의 답사), 토의 설명 중심(미술가의 생애나 작품, 감상활동), 소집단, 개별, 열린 수업 등

이처럼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흐름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과 요구, 효과의 변화에 따라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 방법

가) 교육과정 지역화 편성 절차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미술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실태 분석 및 시사점 추출

아동의 수준과 학력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지도 능력, 미술과 관련 자료 확보 실태, 기타 여건들을 면밀히 파악한 뒤 미술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② 미술과 지도 목표 및 방침 작성

학교의 교육 목표를 기초로 미술과의 지도 목표와 지도 방침을 설정하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내용과 기초 교육 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학년 미술과 지도 중점 설정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중점을 참고로 하여 학년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이며 실제로 실천 가능한 미술과 지도 중점을 설정한다.

④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학습 내용의 추가, 보완, 축소, 통합, 상향, 하향 등 내용과 그 범위를 조정하고, 시간 배당, 지도 시기 조정 등 재구성 작업을 실시한다.

⑤ 학습 목표의 상세화 및 평가 계획 수립

단원별 목표와 제재별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상세화 하고 평가 관점, 문항, 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⑥ 연간 지도계획 및 진도표 작성

학사 일정 및 재구성 자료를 기초로 연간 지도 계획과 더불어 단위·차시별 학습 목표, 지도 내용, 학습 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는 학습 단위의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p. 2).

나) 교육과정 재구성

① 지도 시기의 조절

미술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내용 배열순서는 교수·학습의 진행 순서를 규정한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의 순서이므로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지도시기를 조절,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 간 통합 방안 모색

타 교과와의 학습 내용상의 연계를 고려하여 미술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궁극적으로 재구성 대상 교과들의 학습 목표가 최우선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 순서, 지도 내용, 지도 내용 비율, 지도 방법을 조정하도록 한다. 재구성은 학교의 여건 및 어린이들의 수준과 실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의 순서 및 비중 등을 조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나 목표를 생략하여 지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통합하고자 하는 교과 간의 학습목표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③ 교육과정 재구성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어린이들의 실태와 지역 여건들을 고려하고 학습자료, 지도 시기 등을 대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술 교과서의 단위 순서도 그 순서를 바꾸어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구성은 단위 재구성, 재료 또는 방법에 따른 재구성 등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가. 6학년 미술교과서의 전통미술 관련 내용 분석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하여 발상 지도와 작품 감상을 할 때에 전통미술 작품을 제시하거나 고유의 명절, 전통적인 놀이나 의상 등을 제재와 연관시켜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전통미술이나 풍속 등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1998, p. 107).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과서에 실린 전통미술 관련 감상 작품 도판을 살펴보고 그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6학년 미술교과서의 전통미술 관련 작품 도판 분석

단 원	작 품	작품 설명	비 고
1. 상상표현	현무(민화)	수목채색, 작가미상,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돼지(납석제 십이지상)	통일신라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궁체로 쓰기	옛 글씨	옛 고전에서 집자	.
6. 여러 나라의 민속공예	하회탈	양반탈, 나무, 고려시대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숫대	.	.
7. 환경과 건축	창덕궁 부용정	조선시대	서울에 위치
8. 색과 생활	단청	단청 무늬와 배색	.
10. 아름다운 생활용품	다식판	.	.
	실첩	.	.

교과서상의 사진이나 그림 등 평면적으로만 제시되던 참고작품을 실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어린이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예술적 감흥과 미감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미적 안목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교육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참고 작품은 대부분 중앙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방의 어린이들이 그 실물을 보고 감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도판만을 참고작품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의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교과서 참고작품을 대체할 전시물을 찾아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교사는 전통미술을 다른 나라의 미술과 함께 비교감상·비평할 수 있는 보다 생생한 경험의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6학년 미술교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어린이의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고, 어린이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필수학습요소를 추출하여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미적체험, 표현 및 감상은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표현활동 영역에서는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의 네 가지 기본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표현 활동 시 기본적으로 이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p. 8).

6학년 미술교과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표 II-2>에서 초등 6학년 미술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쉽게 분석·정리하였다. 이 연간 지도 계획은 하나의 예시안이므로 이를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 상황이나 여건, 어린이들의 수준 등을 고려, 재구성하여 지역화 할 수 있다.

<표 II-2> 초등 6학년 미술교과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단원	시간	단원목표	학습제재
----	----	------	------

	배당		
1. 상상 표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상의 세계를 구체화하여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상상한 것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 관찰 표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사물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용구와 재료의 사용법을 익혀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 표현의 특징 알아보기 관찰한 것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 다양한 표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4. 다색 판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색 판화의 특징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색 판화 감상하기 다색 판화로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5. 궁체로 쓰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를 아름답게 배자하여 궁체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 궁체로 '파란 하늘' 쓰기 궁체로 '인사를 잘하자' 쓰기 작품 감상하기
6. 여러 나라의 민속공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나라의 공예품 중 특징이 뚜렷한 것을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공예품 만들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7. 환경과 건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8. 색과 생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의 기능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활용된 색에 관하여 알아보기 ●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9. 알리는 것 꾸미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고 읽기 쉽고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신문이나 포스터를 꾸밀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 알리는 것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0. 아름다운 생활용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의 쓰임과 특징을 알고, 생활에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생활용품 감상하기 ● 생활용품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1. 전시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선정하고 분류하여 장소에 어울리게 배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에 관하여 알아보고 계획 세우기 ● 전시회 하기 ◆
12. 현대미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고,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의 특징 알아보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기 ● 새로운 표현 방법 탐색하기 ● 작품 모음집 만들기

(▣ : 미적체험, ● : 표현활동, ◆ : 감상활동)

3. 문화재 교육

가.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 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

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다음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3) 기념물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식물(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로서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 민속자료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을 가리킨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문화재란 한마디로 민족이 이룩한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나.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정문화재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며, 시·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지정문화재의 종류

유형별 지정권자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지정 문화재	지방유형 문화재		지방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 무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문화재자료						

① 국보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물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은 국보로 한다.

② 보물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전적류·서적류·고문서·회화·조각류·공예품, 고고자료, 무기(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중요민속자료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자료 중 무형적인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의식주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미숙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④ 사적

기념물 가운데 선사시대의 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교육·사회사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

⑤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⑥ 천연기념물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⑧ 지방문화재

문화재의 네 개 유형을 그대로 시도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 명명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지방유형문화재·제주도 지방무형문화재·제주도 지방기념물·제주도 지방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⑨ 문화재자료

토지사가 지정하기는 하지만 건조물·사적 등의 구별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데, 건조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비지정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매장문화재

토지·해저·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하난.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② 일반 동산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 된 동산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화재 분류를 보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즉 국보가 보물보다 중요하다거나 지방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 등의 구분은 지정 주체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보물 가운데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

어떤 문화재이건 소중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없다.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나 우수성일 수는 없으며, 기념물이나 민속자료라고 해서 학문적·예술적 비중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생활 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재라면 훨씬 가치 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다.

다. 문화재 학습의 교육적 의의 및 필요성

문화재 학습이란 문화재를 주제로 한 문화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소재로 한, 즉 문화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어떤 학습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분명히 하여, 그러한 활동과 경험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게 되는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재 학습은 각종 문화재에 대하여 ‘~하는 것을 배운다.’ 또

는 ‘~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다시 직접 만들어 보거나, 문화재에 포함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문화재를 조사, 견학, 감상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재 학습의 교육적 의의

첫째, 문화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문화재에 포함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관련된 의의이다. 체험적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고정된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는 종래의 학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의미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즉 문화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풍부하게 성장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여 수용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양성할 수도 있다.

둘째, 문화재를 조사, 견학, 감상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의이다. 아동들은 그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풍속, 산업, 교통, 생활 모습 등을 견학 혹은 관찰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 선택,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상(事象)에 관하여 아동 스스로가 사실을 수집하고 만들어 가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기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

셋째, 문화재의 유래, 특징, 생겨난 배경,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의이다. 문화재는 아동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물음을 설정하여 가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접하면서 자신의 고장, 국가, 민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2) 문화재 학습의 필요성

첫째, 아동으로 하여금 탐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는 학습 과정에서 탐구의 자료 역할을 한다. 아동들은 문화재라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탐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알아내고 싶어 하느냐 하는 문

제는 기본적인 탐구 능력 또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능력은 역사 학습에서 습득 가능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 형성을 도울 수도 있고,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역사학자의 작업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재는 초등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학습 자료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지 발달 수준은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때의 사고는 지각에만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재를 통하여 과거에 대한 상상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실감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사의 강의나 이야기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사 이해를 돕기가 어렵다. 과거의 일에 대해 흥미를 갖고 현재에서의 의미를 찾으려면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시대로 뛰어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유물, 유적 등의 문화재는 아동으로 하여금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이어서 문화재 자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를 상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문화재의 활용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학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에 대해 아동들이 흥미를 가져야 한다. 문화재 학습도 아동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조작하는 등의 체험적인 학습 활동을 좋아하며 관심을 가진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아동들은 행동이나 체험을 통해서 보다 실감을 갖고 학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사 분야의 학습에서 아동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물, 유적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효과적이다. 아동들은 문화재를 직접 보거나, 듣거나, 재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어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도 한다.

라. 효율적인 문화재 학습 활동

1) 통합적 학습

문화재 학습은 통합적 학습으로서 특성을 지닌다. 문화재는 그것이 탄생하고 생활에 사용되었던 그 시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성과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적 생활양식, 경제적 생활양식, 공동체 생활양식 및 기타 일반 사회생활 양식의 한 단면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지리, 역사 등의 통합적 교과 성격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문화재로서 도자기는 그 시대의 도자기 제조 기술이나 재료의 사용기술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도자기의 모양에 따라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문화재가 지닌 생활양식의 복합적 의미를 동시에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문화재 학습 활동이라 볼 수 있다.

2) 체험 학습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21세기 4대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을 익히는 학습이다. 여기서 행동하기 위한 학습의 의미가 체험학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다양한 과제를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과 바른 인성을 함양한 인간을 필요로 하며, 학교는 이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일련의 노력이 새로운 학교 문화 창조로 구체화되고 있다.

체험학습 활동은 자연과 문화 현상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집단행동의 훈련과 협력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예시한 체험학습 활동인 소풍, 수학여행, 견학, 답사, 방문 등은 학교 수업의 연장 활동이며 산 교육의 장이다. 특히,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내용을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여행보다는 좀 더 학습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단순한 조사 활동보다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와 학습이 필요하며 현장학습 후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실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사전 준비학습과 교사의 안내와 설명, 체험 활동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현장학습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재 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래에 비하여 체험학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 학습은 학교 안뿐만 아니라 유물과 유적이 있는 현장 그리고 인터넷 공간까지 확대하여 학습이 가능해지는 형태이다. 그 중 현장학습은 문화재 학습의 꽃으로서 그 효과를 높이 인정받아 오고 있는 학습 방법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현장학습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학습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듣고 기록할 것인지,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차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미리 이루어진다면 현장학습은 현실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해줌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사회 인식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학습 활동이 된다.

Ⅲ. 제주지역 문화재 및 문화시설 활용지도

1. 문화시설 활용의 의의

교사들이 학습 주제를 가르치는데 있어 교과서와 교실 내에 제한된 활동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문화시설 및 문화재 활용지도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현장 학습의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사회의 미술 문제를 학교에서 학습함과 동시에 교사와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미적 생활과 미적 경험을 하면서 미술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 교과는 그 지역의 특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학교로 수용해야 한다. 미술교육은 실생활에서 미적인 체험과 사물을 학습 내용으로 하고,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학습 활동의 배경으로 하여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연관시켜 지적, 정서적, 기능적인 내용으로 통합하여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희, 1997, p. 25).

미술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자연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조형물 및 생활과의 관련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미적인 안목을 길러 준다. 학습 방법면적인 측면에서 어린이가 생활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또 어린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재료로 표현하며 그 지역의 미술가를 탐방하고 견학할 수 있다.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각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의 미술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지역화 되어야 한다. 미술 교육이 각 지역의 미술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지역 문화 속에서 미술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며, 지방자치 시대에도 맞는 것이기도 하다(이규선 외, 1994, p. 125).

미술 교육의 지역화는 미술 수업과 지역 사회 생활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미술의 영역이 단순히 미술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꾸미고 만들어 보면서 미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감상 교육은 실물을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들여다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각지에 훌륭한 상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생겨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인류의 발자취를 그 시대의 미술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하고 그 때의 감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한층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미적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에 있어서는 지역화가 살아있는 감상교육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생활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미술 감상 지도 현장학습이 필요하다. 현장학습이란, 어떠한 일을 실제의 장면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전개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총칭이다. 이는 교실이라는 한정되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의 생활로 발생하는 권태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흥미나 의욕을 불러 일으켜 학습 효과를 올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한

현장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생활 경험과 시야를 넓히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특히 미술 교육은 전인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가능한 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많은 경험으로 미의식의 내면화가 중요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행히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감상영역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미술품이나 민예품들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생각해보고, 다른 고장에까지 그 공간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시각적인 경험의 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더구나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학교 재량 시간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더 확대되어 재량활동으로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연간 68시간 수업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교과외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재량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작품 감상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가장 교육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교사는 아동들이 작품 감상 할 때 지켜야 할 태도와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과 미술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 미술품 등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작품 감상 활동이 습관화되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감상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명승지나 고적,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애호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아울러 미적 체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자연, 주변 환경, 지역사회, 우리나라와 미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감상 관점에 유의하면서 자연이나 조형품 등을 비교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을 찾아보게 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스스로 현장을 탐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육적 기능 및 현황

가. 박물관

박물관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전시를 하여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을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난영, 1996, p. 285)로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그를 보관·전시하는 시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그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보관·전시되어 있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과거 및 현재의 자연적·문화적 유산 등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의 가치, 신념, 지식, 그리고 태도의 변화 등과 같은 개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기능은 조사연구, 수집, 보관, 전시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보다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자료나 표본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조사, 연구,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보다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 대중의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혀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데 있는 것이다.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되, 재미있고 극적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박물관의 유물은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과 삶의 자체가 응결된 우리의 조형 예술품이다. 이는 언어로 개념화된 지식이 아니라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문화의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 실증적인 자료이면서 조형미술품들이 대다수이기에 그것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면 교육적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술교육은 시각적 촉각적 매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기에 풍부한 영상 자료와 실제적인 유물이 보존 전시되어있는 박물관은 매우 유익한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술교육 중 감상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 학습은 더욱 중요하다. 미술교과서의 도판 사진과 개념적 언어나 인쇄물로 자족해야 하는 것을 도판 자료 중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제의 유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술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박물관

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에 있는 박물관 현황은 <표 III-1>과 같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현황

박물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720-800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 2동 996-1	722-2465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아라 1동 1	754-2241~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 2동 539-14	752-9101
제주민속박물관	제주시 삼양 3동 2505	755-1976
중문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중문동 2563-1	738-8539
곰인형박물관	서귀포시 색달동 2889	738-7600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764-7777~9
제주민속촌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787-4501

앞에서 언급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아동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고무시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아동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셋째, 아동들이 과거·현재의 자연적·문화적 유산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능력을 신장시켜 미적 체험을 확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실제 체험을 통해 오감에 의한 입체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나. 미술관 및 전시 공간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을 살펴보면 제2조 2항에서는 ‘미술관은 박물관으로서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

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호·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미술관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교육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술관은 미적 체험의 공간으로서는 물론, 전문인과 학생들의 연구 기관,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 어린이를 위한 교육 기관, 더 나아가 사교의 장소로 가능하며 대중의 삶에 활용되는 장소로 사용 되고 있다. 대중을 위한 근대적 의미의 미술관이 나타나면서 대중의 문화적·역사적 의식을 교육하고 심미감을 고양시킨다는 이념 아래 미술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희는 미술관의 교육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1998, p. 26).

첫째, 문화적·사회적 관계의 작품 전시의 필요성

둘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연결의 중요성

셋째, 미술가와 예술적 기법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넷째, 순수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다섯째, 미술관에서는 전시 이외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슬라이드 상영, 강연회 등의 이론 교육 프로그램과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전시, 보존의 기능과 상호 협력 하에 미술관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 기능의 수행은 미술관 관람객들을 미술관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해와 미적 감성을 향상시켜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미술 창조에 일조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감상교육에는 작품을 접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분명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술관 교육에서는 먼저 아동들에게 미술 작품에 접하는 태도를 올바르게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술관과 전시관을 통한 감상교육으로 보다 감동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미술관은 지금까지 교과서 속에서 복사품 밖에 보지 못해 왔던 어린이들에게 진품의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 공간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품의 대형 명화를 미술관에서 직접 접하게 될 때의 감동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

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에 현재 전시되고 있거나 소장된 작품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예술적인 안목을 높여 주고, 표현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어린이 미술관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술관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은 학교에서 실기 교육 수업을 받아 왔던 어린이들에게 미술관이라는 특이한 양식의 건물로 입장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된다. 어린이들에게 미술관 그 자체와 조명장치·작품의 배치·음향 등이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수업에서 받아 왔던 감상 수업과 달리 작품의 크기와 색감, 질감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스스로 감상하며, 설명 없이도 어린이들은 작품으로부터 상상력과 감각, 느낌으로 작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재료 사용 방법,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거기에 체계적으로 미학적인 면과 미술품에 담긴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표현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감상과 표현이 적절히 융화된 바람직한 미술 수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의 느낌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감상을 한 후, 그것이 얼마나 표현에 반영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험은 어린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미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미술품을 통하여 자기 밖의 세계를 체험하고 재인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한 표현력도 길러진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은 학생들에게 재료와 형태를 통하여 미술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미술관을 방문하여 생기는 배움은 비형식적이며 자유스럽다는 것을 느낀다. 수업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이 배움을 갖는다. 또한 그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이나 분야에 많은 시간과 내용들을 접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배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경험한다.

둘째, 아동들의 미적 의식을 고양한다.

셋째,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감상으로 미술 소비자로서의 감상 능력을 길러 준다.

넷째, 예술적 안목을 높여주고 표현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감상 교육은 학교와 인접한 지역 사회의 미술관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미술품들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미술관과 전시 공간은 <표 III-2>와 같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관 및 전시 공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772-4003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733-1524, 1586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서귀동 512-1	760-3567
제주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27	794-9680
김영갑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37-5	784-9907
추사적거지기념관	제주시 대정읍 안성리 1661-1	730-1443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일도 2동 852	754-0525

다. 조형물 및 자연환경과 문화재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되며 자연과 주변의 다양한 조형물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감동은 생활의 즐거움을 주고 거기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며 미적 가치를 향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연미 감상의 출발점은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조형적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형물이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가꾸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게 한다. 즉 우리나라 조형물이 다른 나라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하여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와 전승 위치를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교육부, 1997, p. 28).

자연은 사람의 능력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으며 자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의 의식, 즉 삶의 자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적 대상의 자연 속에서 무수한 감정을 느끼고 자연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인간 행위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 안기는 아름다움이고, 차차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배우는 인위의 미다. 인간은 자연에서 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발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생활주변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용품이나 주변의 조형품 속에서도 무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은 인간 정신이 표현된 것이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작품이 아닌 생활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재 속에도 아름답고 정서적인 환경을 꾸미고 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조형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의 건축물 역시 단순한 실용물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을 살피볼 수 있다. 생활주변의 조형물 속에 나타난 형과 색채, 비례와 균형 등을 주위 깊게 살펴보면 조형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적 지각이 계발되는 것이다.

고장의 문화재는 그 시대의 삶과 생활을 관계 지을 수 있으며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미술로 생활 개선의 의지와 태도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순수 예술품은 물론 다리, 담장, 건축, 가구, 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조형미 감상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의 조형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또 몬드리안(Mondrian)은 ‘미술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실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조형품은 그 기능과 아름다움이 순수 미술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창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미술은 인간의 감정과 심성을 조정하고 개인 생활은 물론 국가 발전에까지 영향을 준다(김상량, 1992, p. 72).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밝힌 몬드리안의 견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미의 세계를 미술품 이외에 자연의 대상, 자연현상, 조형적 환경 등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연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식물, 계절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변화 등이며, 조형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술작품, 야외조형물, 건축물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등이 있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은 미적 교육으로서 미가 존재하는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혀야 한다.

위 내용에서 미술과 교육은 학생들의 경험과 교육의 장을 넓혀 생활과 연관 지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 활동의 목표는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 속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미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생활 속에서 미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활동해 보려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주변의 자연과 조형물, 문화재 감상을 통해서 길러진 미적 안목은 미술을 표현하는 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찾아보고 개선하는 태도에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은 <표 III-3>, <표 III-4>과 같다 (제주도, 2004).

<표 III-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	소재지
보물	322	관덕정	제주시 삼도 2동 983-1
	1187	불탑사5층석탑	제주시 삼양 1동 696
	652-6	탐라순력도	제주시청
	569-24	안중근의사유묵	제주시 이도2동 417-3
사적	134	삼성혈	제주시 이도1동 1313
	380	제주목관아지	제주시 삼도 2동 43-3외
	396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26-1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외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제주시 삼양 1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913 9L 일대
중요민속자료	32	연자마	
	-1	잣동네말방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	당거리동네말방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68	성읍 조일훈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2
	69	성읍 고평오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59
	70	성읍 이영숙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99
	71	성읍 한봉일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28
	72	서읍 고상은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62
	188	성읍민속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40	제주도내왓당무신도	제주대학교박물관

<표 III-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정 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	소재지
유형 문화재	2	제주향교	제주시 용담동 298
	3	연북정	북군 조천읍 조천리 2690
	4	대정향교	남군 안덕면사계리 3126
	5	정의향교	남군 표선면 성읍리 820-1
	6	향사당	제주시 삼도1동 970-2
	7	일관헌	남군 표선면 성읍리 809-1
	8	신촌향사	북군 조천읍 신촌리 2156-1
	18	보림사목조관음보살좌상	제주시 건입동 388 (보림사)
기념물	1	오현단	제주시 이도1동 1421-3

	2	지석묘	도 일원
	3	제주성지	제주시 이도1동 1437-6
	4	삼사석	제주시 화북동 1380
	7	명월대	북군 한림읍 명월리 하천변
	9	절부암	북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
	13	법화사지	서귀포시 하원동 1071-1
	17	혼인지	남군 성산읍 온평리 1693
	23	연대	도 일원
	24	별방진	북군 구좌읍 하도리
	25	목석원	제주시 아라동 1795-1
	30	화북비석거리	제주시 화북동 3957 별도천
	43	존자암지	서귀포시 하원동 산 1-1
	49	환해장성	도 일원
	54	하원동 탐라왕자묘	서귀포시 하원동 21
민속자료	1	복신미륵	제주시 일원
	2	돌하르방	도 일원
	3	제주도의 초가	도 일원
	4	제주도의 와가	도 일원
	5	남방아	제주대학교 전물관
	6	상여(제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8	방사탑	도 일원
	문화재자료	제4호	월정사 소장 불상
제5호		제주속오군적부	제주시 이도2동 1176-1 제주

			시청
--	--	--	----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 및 자연환경의 교육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형물과 자연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미적 지각이 계발된다.

둘째,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셋째, 현장학습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 공간, 조형물 및 자연환경, 문화재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고무시켜 흥미를 유발하여 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경험하여 미적 의식을 고양시킨다.

셋째, 아동들의 과거·현재의 자연적·문화적 유산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신장시켜 미적 체험을 확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생활주변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므로 미적 지각이 계발되고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다섯째, 현실감과 생동감으로 미술 소비자로서의 감상능력을 향상시켜 미적 안목을 높여주고 표현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여섯째, 조상들의 직·간접적으로 이룩해 놓은 미술품과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들에 애착심을 갖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삶 속의 미술교육, 미술을 즐기고 향수 하는 미술 소비자 교육, 조화로운 인간 양성을 위한 미술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미술 수업과 실생활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연 및 생활 주변의 조형물 감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교육계획 실태 및 감상학습 방법

본 연구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의 2008학년도 미술과 교육과정

연간 교육 계획과 현장학습 계획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감상학습 유형을 정한다.

가. 현행 학교 교육 계획 실태

본교 미술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③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④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⑥ 재료와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⑦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⑧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본교 미술과 영역별 지도내용은 <표 III-5>과 같다.

<표 III-5> 미술과 영역별 지도내용

영역	지 도 내 용	노력 중점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자연과 조형 환경 속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 자연과 조형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형태의 기본이 되는 선과 형, 색채의 특징 찾기 * 선이 주는 느낌의 다양성을 관찰하여 자연과 조형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관심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이는 환경 구성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등 주제를 자유롭게 나타내기 *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주제로 나타내기 * 주제를 평이한 한글로 나타내기 *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내 미술 그리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본체로 쓰기 *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하기 * 질감이 있는 재료를 만져 보고 그림으로 표현된 질감 감상하기 *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 점획의 길이, 방향 등을 익혀서 붓글씨 쓰기 * 크레파스, 크레용, 수채 불감, 먹, 파스텔 등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알고 나타내기 *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해 관심과 흥미 갖기 * 친구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을 보고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보기 * 서로의 작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찾아보기 * 작품에 대해 솔직하게 느낌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 갖고 경청하기 *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등의 차이에 관하여 토의하기 * 우리 고장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미술품이나 민예품을 찾아보고, 그 특징 알아보기 *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의 미술품과 민예품 감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 높이기 * 우리 고장의 미술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찾아보기 * 우리나라의 미술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 작품 전시회

<표 8>에서의 미술과 영역별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미적체험, 표현, 감상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상 영역에서의 지도 내용 중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의 미술품과 민예품 감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 높이기 등으로 전통미술에 대한 감상 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노력 중점을 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으로 정해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진도표

월	주	단원 (차시)	시 간	학 교 행 사
3	1		0	1삼일절

	2	1. 상상표현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감상하고, 상상한 것 표현하기(2)	2	3시업식/입학식 8토요휴업
	3	▶상상한 것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4	2. 관찰표현 ▶관찰표현의 특징 알아보고, 관찰한 것 표현하기(2)	2	22토요휴업
	5	▶관찰한 것 표현하기(2)	2	29개교기념행사
	6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1) ◎과학의 날 행사 - 과학 상상 그리기(1)	2	2교내과학행사
4	7	3. 다양한 표현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2)	2	9총선일 12토요휴업
	8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2)	2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봄소풍주간 26토요휴업
	10	4. 다색 판화 ▶다색 판화 감상하기(2)	2	3체육대회
5	11	▶다색 판화로 표현하기(2)	2	5어린이날 10토요휴업
	12	▶다색 판화로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12석가탄신일 15스승의날휴업
	13	5. 궁체로 쓰기 ▶궁체로 '머루 다래' 쓰기(2)	2	24토요휴업
	14	▶궁체로 '과란 하늘' 쓰기(2)	2	
	15		0	6현충일 7제량휴업일
6	16	▶궁체로 '인사를 잘하자' 쓰기(2)	2	14토요휴업
	17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18	6.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품에 관하여 알아보기(2)	2	28토요휴업 25통일행사
7	19	▶공예품 만들기(2)	2	
	20	▶공예품 만들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12토요휴업
	21	*심화·보충 학습①	1	19방학식
9	1	7. 환경과 건축	2	1개학

		▶환경과 건축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2)		
	2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 표현하기(2)	2	13추석연휴
	3	8. 색과 생활 ▶생활에 활용된 색에 대하여 알아보기(2)	2	15추석연휴
	4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꾸미기(2)	2	27토요휴업
	5		0	3개친절 4운동회
10	6	9. 알리는 것 꾸미기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2)	2	9한글날행사 11토요휴업
	7	▶알리는 것 꾸미기(2)	2	-소풍주간
	8	▶알리는 것 꾸미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25토요휴업
	9	10. 아름다운 생활 용품 ▶여러 가지 생활 용품 감상하고, 생활 용품 만들기(2)	2	
	10	▶생활 용품 만들기(2)	2	8토요휴업
11	11	▶생활 용품 만들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2)	2	
	12	11. 전시회 ▶전시회에 관하여 알아보고 계획세우기(2)	2	22토요휴업
	13	▶전시하고, 전시회 관람하기(2)	2	
12	14	12. 현대 미술 ▶현대 미술의 특징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기(2)	2	
	15	▶새로운 표현 방법 탐색하기(2)	2	12학예발표회 13토요휴업
	16	▶작품 모음집 만들기(2)	2	
	17		0	24방학식 25성탄절 26방학27토요휴업
2	18	◎6학년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2)	2	2개학
	19		0	12졸업/종업식 13방학14토요휴업

<표 III-6>에서의 본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감상 활동은 단

원별로 아동 작품을 서로 감상해보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 외의 감상활동으로 11월에 전시회 관람 계획이 2시간, 12월에 현대미술 감상 계획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역시 해당 미술관이나 전시공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그 운영 여부가 확실치 않다.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실태를 보면 매우 소극적인 감상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인술에 따르는 위험성으로 회피하거나 현장학습, 수학여행의 일정에 포함시켜 의례적인 행사추진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 감상이나 작품 감상과는 거리가 먼 견학일 뿐 적극적인 미술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는 3월에 연간 교육계획안을 수립할 때 특별·재량 활동 시간과 현장 체험 학습 운영, 그리고 교과교육 계획안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및 전시 공간 이용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화시켜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즉 특별·재량 활동 시간과 현장 체험 학습 시간, 그리고 미술과 관련 단원의 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계획의 수립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크기는 이원적 차원에서 계획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원적 계획 수립이란 첫째, 계획은 특별·재량활동 시간과 현장 체험 학습 활동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미술 교과와 감상이나 표현 활동, 혹은 미적 체험 활동 단원과 관련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 및 전시 공간 이용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적 계획에서 전자와 후자 모두 문화시설의 연간 활동 계획이나 기획 및 특별 전시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부터 계획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것은 역시 문화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료나 자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참고삼아 계획되어야 한다. 자료가 아니더라도 미술과 단원 지도 계획이나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하여 문화시설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와 문화시설은 어린이들을 훌륭한 시민, 나아가 영혼이 아름다운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시설과 학교는 서로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계획을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감상학습의 유형

학교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할 감상학습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미술과 교과 학습의 단원과 관련한 학습이며, 둘째는 현장 체험 학습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감상활동이며(혹은 수학여행), 셋째는 박물관 운영 계획에 따른 기획전이나 특별전시를 기하여 감상 학습을 전개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공휴일이나 방학 등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자유감상 활동이다(이은진, 2005).

1) 미술과 교수-학습의 일환으로서의 박물관 감상 활동

미술과 단원 전개 학습의 일환으로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학습일 경우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표현과 감상의 상호작용을 위한 박물관 감상 학습, 둘째는 감상을 위한 박물관 감상 학습이 그것이다. 첫째 형식은 표현과 감상을 적절히 전개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표현력과 감상력이란 두 능력의 상승작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미술과의 감상 영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설된 단원으로서의 감상 학습의 실제이다.

2) 현장체험학습과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감상 활동

현장체험학습과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감상활동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학교 밖 활동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미술 관련 감상활동을 폭넓고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 중 한가지이다. 이것 또한 사전계획과 현장지도 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가능하면 학교, 학년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활동은 교과교육으로서의 감상활동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미술관과 박물관의 기획전이나 특별전시를 통한 감상활동

미술관·박물관 학습의 세 번째 형식은 미술관과 박물관 자체에서 새해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특정 주제에 의한 기획전이나 특별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다. 이런 중요한 기회와 연동하여 전개하는 감상 활동인데 적어도 미술관과 박물관이 학교와 잘 연계되어 있다면, 미술관 등은 기획에 맞추어 전시를 개최하고 학교는 계획된 전시에 맞추어 감상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특별전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측이 몇 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추진, 개최하는 전시회인 동시에 사회교육 활동이기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 중요한 노력 중의 한 가지에 학교와 연동하여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기관의 관계자가 충분한 협력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전시 기간 중 학교 교사는 학생의 감상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며, 박물관 교육 담당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전시회는 지역사회나 학교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인 기회가 되기에 미술관·박물관과 학교는 면밀하고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각기 바라는 바의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휴일이나 방학 등을 이용한 자유 감상활동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박물관 감상교육이다. 이에 비해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이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범주에서 자발적인 활동에 의하여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여가를 이용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문화시설을 찾아 알차게 이용하는 습관과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에서 감상활동이 이루어진다. 특히 근래에는 토요일휴업일 때문에 주말에 여가 시간이 길어져 자유 감상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회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휴일을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공휴일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문화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먼 거리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전시 공간을 방문, 자율적으로 탐구적인 감상학습을 체험하게 한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학습 공간을 미술관이나 전시장으로 확장시킬 때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뚜렷한 학습목표와 체험방법을 안내하여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학습 계획

미술을 통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워 준다면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형 감각도 세련되어 생활을 운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 감상을 위한 올바른 교육은 아동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견학을 할 때에는 많은 작품들을 그냥 둘러보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가지고 관람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골라 집중적으로 감상한 뒤 교실에서 토론을 통해 감상 결과를 객관화시키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작품의 작가와 제목, 제작 연대 등을 외우는 지식적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느끼며 판단하고 평가하는가의 작업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미술관 관람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사의 계획과 지도 아래 경제적,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시 내용을 선정하고 미술관을 택해야 한다(교육부, 1997, p. 37). 따라서 적극적인 감상지도를 위한 현장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시한다.

첫째, 현장학습 할 장소에 대한 교사의 현장 계획 세우기 및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

현장 학습의 장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교육과정과 현장학습 장소 중 어느 것에 우선권을 두는가에 따라 정해지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사전 답사 시 교통편, 집결 장소 등을 유념하고, 특히 주변 경관에서 찾을 수 있는 미적 요소를 관찰 해둔다.

둘째, 견학에 따른 유인물을 작성한다.

현장학습에 필요한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안내 책자 등을 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견학 안내, 일정표, 감상 활동지 및 참고자료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사전에 나누어 준다.

생활주변의 문화시설을 직접 관람하며 실시하는 감상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물은 감상 작품에 대한 자료와 감상한 것을 적게 하는 감상 기록지이다.

특히 현장 학습을 통한 감상 수업을 할 때에는 견학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관람

할 것에 관한 자료를 미리 나누어주고 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람하는 곳이나 조형물에 대한 사전 지식은 견학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감상 활동지는 감상 수업을 할 때 아동들로 하여금 감상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표현 내용이나 방법, 재료나 용구, 조형 요소나 원리 등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며, 형성 평가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쓰이고 있다. 생활주변 미술환경을 활용한 감상 수업에 사용되는 감상 활동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학습주제에 따라 혹은 학습방법이나 관람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한 감상 활동지는 오히려 아동의 흥미를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감상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셋째, 단체 관람 시 미리 공문을 보내 관람 일정을 알려야 한다.

넷째, 인솔 방법을 계획한다.

어린이 인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교사가 감상 지도의 리더가 되어 직접 인솔하는 방법으로 입구에서부터 일렬로 진행하면서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를 견학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적인 관찰의 기회가 줄어들며, 선별적이며 집중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미리 관람 주제를 정해준 뒤 조별로 감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은 보통 고학년에 적합한 것인데 어린이들이 성실히 관찰에 임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감상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점은 집단 간의 연락이 어려워 교사가 통제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별 자유 관람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교사가 현장 입구까지만 인솔하고 그 밖의 관람은 어린이 각자의 감상과 취향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별 관람이므로 교사나 어린이 상호간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어 매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람 및 관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저학년의 경우 관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편협한 관람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은 현장 학습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고루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관람 방법 및 관람 태도를 지도한다.

여섯째, 현장 학습 후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제가 일반적인지 특수한 것인지 또는 개인전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와 화풍인지 알고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하면 아동에게 작품 감상의 과정을 명확히 해줄 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과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라. 작품 감상 방법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 한 점 한 점을 주위 깊게 보면서 느낀 점이나 감동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거나 토의를 하여 자신과 다른 견해를 알게 되었을 때 보다 폭넓은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면 올바르고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다(이윤구외, 2000, p. 136).

첫째, 작품 속에 나타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작품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 또 어떠한 색으로 이루어졌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감상자 자신이 작품에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보이는 대로 작품을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둘째, 작품이 이루어진 구조를 살핀다. 조형적인 요소나 원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예술작품들이 색이나 형태 또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셋째, 작품의 제작 동기나 배경, 시대적 배경 등을 알아본다. 대체로 작가는 어떤 소재나 감동으로부터 미적 충동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러한 동기나 배경을 알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거나 최초로 느끼지 못하였던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면 작품의 역사적 의미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감상자는 작품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이성도는(1997, pp. 19-113)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면서 감상의 왕도는 없다고 하였다.

① 자신의 감성과 지성에 의지하여 솔직하게 바라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미의 순례지와 같은 곳이다. 자신의 방식에 의해 기운을 느끼며 집중하여 보고 작품과 자신과의 교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하여 주제와 메시지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의 눈보다 여러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고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작품에게 말을 걸어 질문하고 다른 감상자들과 토론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보다 명료해지며 이해가 쉬워진다.

③ 자신감을 갖고 자기만의 보는 방법을 찾아내라. 교사는 자유롭게 보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서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안목대로 보고 평가하여 감상하는 것이 보다 편안하게 작품에 다가서는 길이다.

④ 첫인상, 첫 느낌이 중요하다.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작품에서 받는 첫 느낌은 오랜 기간 지속된다. 작품 감상에 있어 논리적, 언어적 접근보다는 직관에 의한 미적 판단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천천히 깊게 관찰함으로써 처음 느꼈던 감동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⑤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찾아보라. 작품의 생명력을 어느 한 부위나 부분에서 연유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관찰하다보면 어떤 연유에서 기쁨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작품을 볼 때 먼저 전체에서 발산되는 기운을 느끼면서 되새겨 보는 것이다. 부분에서 부분으로 또는 전체로 환원시켜 보면서 조형요소, 구조, 원리 등을 음미해 본다. 관찰이야말로 좋은 감상의 첫걸음이다.

⑥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자. 작품을 관찰하거나 제작하는데 있어서 구속이 없이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유물이 주류를 이루는 박물관에서는 종횡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스스로 복원해 보아야 한다.

실사 자유로운 복원이 실제보다 높게 미화되거나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상이란 실체(reality)를 찾는 재미와 맘껏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기와 한 조각, 토기 한 점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화려했던 옛날의 원형을 복원시켜 보는 재미를 갖는 것은 작품을 보고 즐기는 자만이 갖는 행운인 것이다.

⑦ 비교하여 보라. 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매우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대별로 민족에 따른 변화를 서로 비교해 보면 하나만 보였을 때보다 특징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형성, 재료, 표현양식 등 미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감상의 즐거움일 것이다. 비교를 통한 감상은 보다 분명한 미적 경험의 길이 된다.

⑧ 작품의 선택에 유의하라. 특히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수많은 작품이 모두 감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것들은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엄청난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르며 자칫 흥미를 갖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여 집중감상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⑨ 날카롭고 예리한 눈과 분명한 시선으로 감상해야 한다. 감상은 분명한 견지를 갖고 평가해야 한다. 감상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3자인 비평가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라는 자기의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 예리한 이는 예리한 대로, 둔한 이는 둔한 대로 본다.

그리고 감상은 관찰, 분석, 해석, 판단, 가치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느낌이 야기하기, 형식 분석하기, 해석하기 내면화와 애호하기의 과정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위의 네 단계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차은주, 1994, p. 109).

- ① 작품을 대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 ② 이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③ 이 작품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하였을까?
- ④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⑤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의 질문은 어린이들의 감상을 쉽게 구체화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상하는 일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시각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현장 학습

시 1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휴식시간을 갖고, 감상에 소요되는 적당한 시간을 정해준다. 위와 같은 현장계획과 작품 감상 방법은 생활주변 감상학습의 장에 따라 감상지도의 목표와 감상수업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가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IV. 지역화 감상지도 수업의 실제

1. 감상 학습의 장(場) 선정

미술교육은 그 활동 면에서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미적 체험 활동에서는 각종 조형물 감상하기가 수업 과정상 매우 중요하다. 각종 조형물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주변의 물건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회화, 조소, 판화, 전통 공예품 등의 예술 작품이 있다.

표현 활동에 있어서는 참고 작품 감상이 발상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및 조형물과 자연물, 문화재가 활용된다.

감상 활동은 미술관과 박물관 및 조형물과 자연물, 문화재와는 밀접적인 관계에 있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작가 및 외국 작가의 작품들과 전통 공예품 및 민속품 등이 상설 또는 특별 기획으로 늘 전시된다. 따라서 생활주변을 통한 미술 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의 감상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매우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과 생활주변에 있는 미술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미술과는 자연과 가까운 주변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속에 전인적 인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며 활용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런 활동에는 우리 온몸의 감각기관의 운동과 자극 등이 다양화될 때 비로소 생기 있고 풍부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미적 대상을 관찰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미술 수업과 실생활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킨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재 중 제7차 교육과정 6학년 을 기준으로 조형미·자연미·미술품 등을 감상하고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감상 학습

의 장으로 <표 IV-1>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IV-1> 감상 학습의 장

단원	학습제재	감상 학습의 장
7. 환경과 건축	환경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 제주의 초가 ▶ 방사탑 ▶ 연대, 거옥대
8. 색과 생활	전통 색상과 천연 생활에 활용된 색에 관하여 알아보기	▶ 범화사지 ▶ 존자암
9. 알리는 것 꾸미기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 돌하르방 공원 ▶ 제주감귤박물관
10. 아름다운 생활 용품	여러 가지 생활 용품 감상하기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11. 전시회 관람하기	전시회 관람하기	▶ 문예회관 전시실
12. 현대 미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기	▶ 제주현대미술관 ▶ 이중섭미술관 ▶ 조각공원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자 중심의 체험 활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술과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이루어진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미적체험, 표현 및 감상은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학습 내용 범위를 조정하고 학습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적정화한 내용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

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 구조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원이나 수업의 내용에 따라 세 영역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서의 교육 여건이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등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 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과 지도과정 중에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한 가지 영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어느 한 영역이 추가 되고 그 외의 영역을 곁 드리게 되는 교과 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더구나 현장 학습일 때는 교과와의 통합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장학습의 장소 즉 실내 공간을 갖춘 곳, 야외 공간이 없는 곳, 관람만 가능한 곳에 따라 또한 시간에 따라 예를 들면 견학시간이 반나절인 경우와 견학시간이 하루 일정인 경우에 따라 수업형태를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업안은 반나절의 현장학습으로 감상을 주로하고 미적체험과 표현을 곁들인 수업형태로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를 모델로 거리와 시간을 맞추어 관람일정을 짜서 제시함을 밝혀둔다.

2. 감상 학습 모형

감상 영역은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으로 하부 내용이 나누어져 있다. 6학년 시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주의적 관점에 의하여 감상을 하며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논리적,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기이므로, 감상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특징과 차이 등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평을 통하여 작품의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미적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의식하고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감상을 통한 비평 능력은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및 조형물 등의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미적 체험 활동 및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 활동에 도움을 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미술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에서 표현 특징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품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 대해서

도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감상 태도를 기른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pp. 7-10).

미술 감상과 비평 지도방법에는 절대적인 방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는 보는 사람의 감상 능력에 따라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미술 감상·비평 학습에서 어떤 지도 방법이 적합할지 먼저 결정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감상학습과 비평학습은 유사해 보이지만 감상학습은 미적 대상을 통해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비평 학습은 미적 대상의 분석을 통해서 미적 가치 판단에 무게를 둔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술 감상·비평 지도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평형 감상 학습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비평형 감상 학습 모형은 펠드먼(Feldman)의 미술 비평 학습을 적용하여 생각 꺼내기,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미적요소 찾기, 주제 찾기, 미적 가치 판단, 생각 넓히기의 과정에 의해 지도한다. 감상학습 모형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펠드먼의 비평 학습 모형이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모형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이 감상 학습 모형은 학생들이 비평의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과정으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어느 과정에서나 학생들의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류재만 외, 2004, p.288-295).

<표 IV-2> 감상 학습 모형

학습단계	지도과정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꺼내기	작품에 대한 첫인상을 알아보는 단계
전개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언어로 묘사하는 단계
	미적 요소 찾기	제작기법이나 사용한 재료나 용구 등을 분석하고 조형원리를 찾아내는 단계
	주제 찾기	자신의 느낌을 기술하고, 작가가 표현한

		의도(주제)를 읽어내는 단계
정리	미적 가치 판단	아동의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 즉 평가를 내리는 단계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환경과 건축

1) 단원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아름다움과 특징을 파악하여 그것과 어울리는 다양한 건축물 꾸미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자연에 어울리는 조형 표현을 통하여 자연과 조형 활동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고, 미적인 조형 표현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먼저 자연의 특징을 이해하여 표현 활동에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형 표현의 결과보다 설계와 계획 과정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표현 과정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조형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한다.

2) 감상 학습의 장

가) 성읍 민속마을



■ 종 목 :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 지정일 : 1987년 9월 16일

■ 수 량 : 790,747m²

■ 소재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그림 IV-1] 성읍 민속마을 전경

아늑한 터에 주변으로는 마을을 둘러싼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의젓하게 감싸고 있다. 또한 길들이 굽이돌아 나 있고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 평상과 나무들을 두어 쉼터와 모임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마을 민가는 물과는 다른 독특한 건축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一자형 평면을 가진 집 2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배치방식으로 짜여있어 제주도 민속·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가옥으로는 조일훈 가옥(중요민속자료 제68호), 고평오 가옥(중요민속자료 제69호), 이영숙 가옥(중요민속자료 제 70호), 한봉일 가옥(중요민속자료 제 71호), 고상은 가옥(중요민속자료 제 72호) 등이 있다.

정의현 관청건물이었던 일관헌을 비롯하여 느티나무와 팽나무(천연기념물 제 161호)·정의향교·돌하르방·초가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풍경과 함께 제주도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나) 이용 안내

버스 이용 제주시출발(97번 변영로 이용, 약 40분소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 - 표선] 구간 시외버스 이용 (T.064-753-1153) → 성읍민속마을

다) 관람 안내

☞ 1코스

남문 → 연자매, 고평오가옥 → 고상은가옥 → 방죽 → 정의현객사 → 조일훈가옥 → 한봉일가옥 → 남문

☞ 2코스

느티나무와 팽나무 → 일관헌 → 이영숙가옥 → 정의향교 → 주차장

☞ 전체관람

남문 → 연자매, 고평오가옥 → 고상은가옥 → 방죽 → 정의현객사 → 느티나무와 팽나무 → 일관헌 → 이영숙가옥 → 정의향교 → 한봉일가옥 → 남문

◎ 관련문의 안내

- 성읍민속마을보존회 : 064-787-1179
- 성읍민속마을관리사무소 : 064-787-5560
- 문화관광해설사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60-2664
- 홈페이지 : <http://www.seongeup.net/>



[그림 IV-2] 성읍 민속마을 관람 안내도

3) 교수-학습 과정안

<표 IV-3> 교수·학습 과정안 : 제주의 초가



단원	7. 환경과 건축		영역	미적체험 및 감상
학습주제	환경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세워진 건축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감상 활동지, 민속마을 안내자료, 호투라기		
	아동	필기도구, 색연필		
단계(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10)	생각 꺼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초가 · 초가를 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야기하기 · 초가에 들어가 본 경험 이야기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활동지 ▶ 필기도구
전개(50)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에 들어가 보고 관찰하기 · 옛날 조상들이 살던 초가와 오늘날의 건물들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기 ○ 초가의 모습 그려보기 · 초가의 모습 그려보고 자연의 색은 어떤 색인지 살펴보기 · 초가를 짓기 위해 사용된 재료 적어보기 · 초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살펴보기 		▷사전에 민속마을 안내도를 나눠주고 충분한 학습코스 설명과 활동 종료 후 모임 장소를 정해두도록 한다.
정리(20)	주제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의 특징 찾기 · 제주의 자연환경을 생각하며 초가의 특징 적어보기 · 초가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 적어보기 		▶ 색연필
	미적 가치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의 장점과 단점 · 초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초가를 현대적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지 구상해보기 		▷사전에 초가에 대한 자연적·문화적 정보를 미리 지도한다.

4) 감상활동지

<표 IV-4> 성읍 민속마을 감상학습지 : 제주의 초가



제주의 초가

()초등학교 6학년 ()반 이름 ()

★ 초가의 첫인상을 적어 볼까요?

★ 조상들이 살던 초가와 우리 집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 초가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도 적어보세요.

★ 초가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고 미래의 초가를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지 상상하여 그려보고 설명해 보세요.

나. 아름다운 생활 용품

1) 단원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의 쓰임과 특징을 살펴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미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원의 도입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생활 용품을 살펴보고 조상들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하여 우리 민족의 예술적 감각에 관한 우수성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생활 용품과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감상하는 학습활동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하며, 그 밖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용품에 관련된 사진 자료의 수집과 감상 학습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생활 용품의 기능 및 특징과 시대의 변천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미래 사회의 생활 용품을 창조해야 할 주역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보다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생활 용품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쓰도록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생활 용품의 소중함을 알고, 사용할 때 불편한 점에 관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편리하고 아름다운 생활 용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감상 학습의 장

가) 국립제주박물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61번지

■ 면적 : 55,57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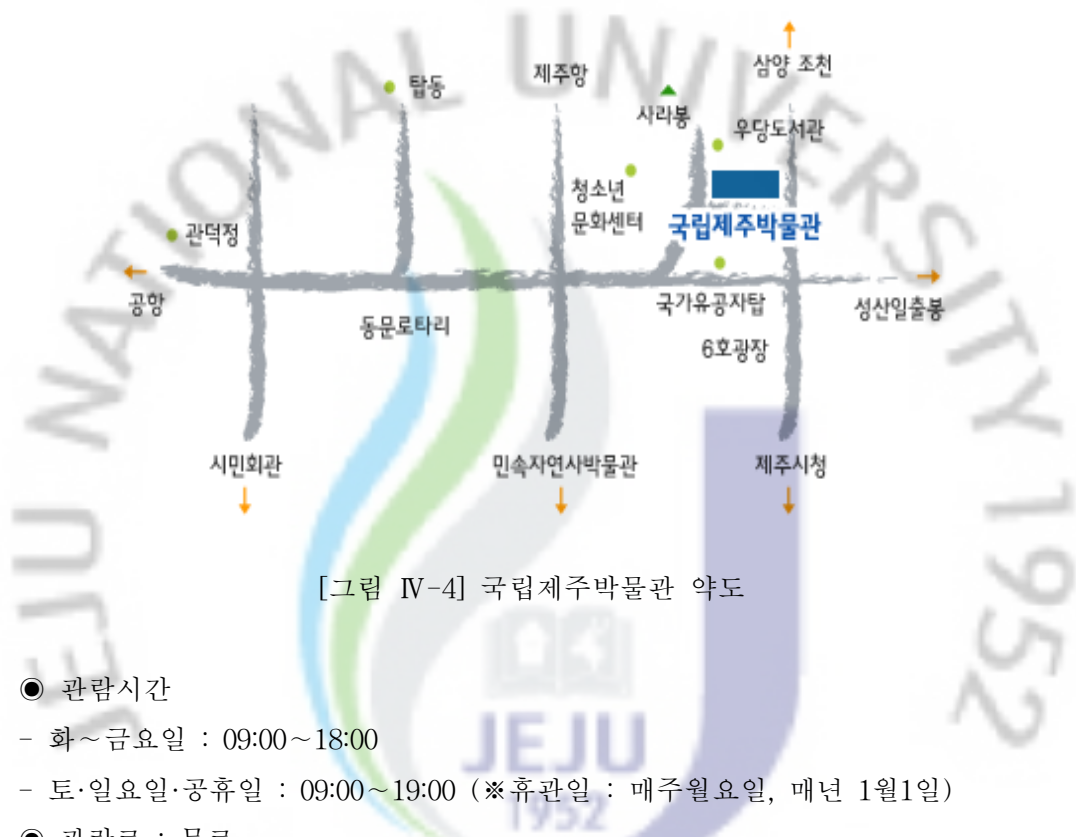
■ 주요사업 : 소장품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문화강좌, 세미나 개최, 학술연구사업

[그림 IV-3] 국립제주박물관 전경

제주지방 고유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유물을 수집·전시·연구하며, 문화시설의 지방 균점화 및 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건립되었다. 2001년 6월에 개관한

고고·역사박물관으로 도내 여러 유적에서 발굴·수집한 유물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로 대강당, 기획전시실, 전문자료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용 안내



[그림 IV-4] 국립제주박물관 약도

- 관람시간
 - 화~금요일 : 09:00~18:00
 - 토·일요일·공휴일 : 09:00~19:00 (※ 휴관일 : 매주월요일, 매년 1월1일)
- 관람료 : 무료
 - 대상 :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관, 특별전시(단, 유료 특별 전시 제외)
 - 기간 : 2008년 5월 1일~2008년 12월 31일(8개월간)
- 관련문의 안내
 - 전화 : 064-720-8000
 - 홈페이지 : <http://jeju.museum.go.kr/kr/>

다) 관람 안내

<표 IV-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안내


전시실	대표전시유물	전시실 소개
선사· 고고실		선사·고고실은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구석기시대부터 기원전후에 이르는 선사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탐라 I 실		탐라 I 실은 기원전 후부터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탐라 전기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탐라 II 실		탐라 II 실은 탐라문화의 전개와 발전을 보여주는 탐라 중기문화와 고려시대 탐라(제주)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탐라 III 실		탐라 III 실은 옛 지도 속 탐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시대실		조선시대실은 조선시대 제주도 통치 자료와 유배 자료, 제주 사람들의 생활 자료, 표류와 표착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기증 유물실		기증유물실은 2001년 6월 개관 이래 기증된 수천여점의 유물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교체 전시하고 있다.
야외 전시장		야외전시장은 제주의 현무암으로 만든 조형물과 민속품을 만날 수 있다. 정주석, 연자방아, 돌화로, 풀고래(맷돌), 기름틀 등의 생활용품도 전시되어 있다.

3) 교수·학습 과정안

<표 IV-6> 교수·학습 과정안 : 조상들의 생활 용품

단원	10. 아름다운 생활 용품		영역	미적체험 및 감상
학습 주제	여러 가지 생활 용품 감상하기			
학습 목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생활 용품과 특징을 살펴본다.			
학습 자료	교사	감상 활동지, 박물관 안내자료, 호루라기		
	아동	필기도구, 사진기		
단계 (분)	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과 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	생각 꺼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용품의 쓰임 상상하기 ·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쓰였을지 상상하여 보기 · 사용해 본 경험 이야기 해보기 		<p>▶감상 활동지</p> <p>▶필기도구</p> <p>▷사전에 박물관 안내도를 나눠주고 충분한 학습 코스 설명과 활동 종료 후 모임 장소를 정해두도록 한다.</p> <p>▶색연필</p> <p>▷유물에 관한 설명도 잘 기록해두도록 한다.</p>
전개 (50)	관찰하고 이야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용품 관찰하기 · 옛날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 용품과 오늘날의 생활 용품들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미적 요소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그려보기 · 생활 용품을 그려보고 어떤 색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기 · 생활 용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 적기 		
	주제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의 특징 찾기 · 생활 용품의 특징 적어보기 · 생활 용품의 편리한 점, 조상들의 슬기로운 점 찾아보기 		
정리 (20)	미적 가치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의 장점과 단점 · 생활 용품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든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보기 · 조상들의 생활 용품을 현대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 구상해보기 		

4) 감상활동지

	<h3>조상들의 생활용품</h3>
() 초등학교 6학년 () 반 이름 ()	
★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썼던 물건일까요? <hr/> <hr/> <hr/>	
★ 생활 용품을 사용했던 장면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 오늘 날의 생활 용품과 비교해 보고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더 아름답고 쓸모 있게 만들지 구상하여 보세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적 체험 및 감상 교육을 중시하는 미술 교육의 추세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의 미술 교육을 보완하고 나아가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현장감 있고 실제적이며 지역화된 미술과 감상 지도 수업 예시안을 제시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미술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미술의 미적 체험 및 감상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통한 미술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지 외국과 우리나라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거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 또는 대도시에 몇 개 안되는 국립박물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교육만을 다루었지 그 같이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없고, 또한 있어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의 생활주변에 있는 미술환경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미술과 감상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감상 지도의 중요성 및 교육과정을 고찰해보고 선행연구와 초등학교 미술교과의 현행 교육계획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감상학습의 장으로 교실과 생활주변의 장을 비교해보고 감상 지도 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주변 미술환경으로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 공간, 문화재 등의 교육적 기능과 현황을 알아보았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안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은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시·도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는 지역사회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대신 교과서 위주의 국가 중심 교육과정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방식과 학교 관리자, 교사들의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미술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부단한 연구 활동과 학교 관리자들과의 관심이 고조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청 단위의 적극적인 자

료의 개발과 보급으로 교수-학습의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장학습은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뚜렷한 학습 목표나 체험 방법에 대한 사전 학습과 추수지도가 부족한 둘러보기 식의 현장체험 학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단원 학습의 전개 계획을 고려하여 표현학습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미리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는 작품들을 박물관에서 충분히 감상하게 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와 차시학습의 계획에 따라 표현활동을 전개하는 형식으로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관하여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감상용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공간, 문화재를 활용하여 초등 6학년 미술과의 내용을 재구성한 예시안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문화시설 및 문화재와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 6**.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학교 미술 6**.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운영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 김명희(1997). **초등 미술 교육과정의 지역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은희(1998). **미술관 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재만 외 3인(2004). **재미있는 미술감상수업**. 도서출판 예경
- 이규선 외 2인(1994). **미술교육학 개론**. 교유과학사
- 이난영(1996).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 이윤구 외 4인(2000). **미술이론**. 교학사
- 이성도(1997). **어떻게 볼 것인가? 미술교육논총 제 7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이은진(2005). **국립대구박물관을 활용한 미술교과 교육과정 지역화 수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정옥(1988).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제주도(2004). **문화예술현황**. 관광문화국문화예술과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도문화재지도자료-제주문화의 향기**.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
- 제주문화예술재단(2004). **제주문화예술현황:단체·시설**.
- 차은주(1994). **DBAE FORMAY의 미술비평을 통한 감상지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보숙(2001). **생활주변 미술환경 활용을 통한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A Study on Regional Spe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Yim, Choon Bae

Major in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im, Choon Bae

Keeping pace with the current fine arts education emphasizing aesthetic experience and appreciative education, this study laid emphasis on presenting a more authentic, practical and localized teaching plan of fine arts.

Till now, the preceding studies on fine arts education have proposed fine arts education based on art galleries and museums as a method to supplement the aesthetic experience and appreciative education. However, their contents are limited only to appreciative education based on art galleries and museums, and it is not easy to find practical studies on the fine arts education program for the student living where there are few large galleries and museums which have good educational programs.

It is thought that to make our students have practical appreciative education in such a situ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nd apply appreciative instruction programs associating the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09.

daily life with fine education in schools. Firstly, The importance of appreciativ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ams were examined, and the realities of curriculum were analyzed. In addition, our classrooms were compared with the fields in daily life as the field of appreciative education, and proposed a teaching plan for appreciative education. It involves the contents fitting children's interests and the real circumstances of the city.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function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daily life in Jeju, places were selected as the fields of appreciative education.

